

사진기자의 땀방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온 동네를 무대 삼아 숨바꼭질을 하면서 하루 해가 지는 줄도 모르면 시절이 있었습니다. 골목길 틈새 틈새, 날찍한 고무 대야, 커다란 나무 뒷 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만 있으며 숨어들었다가 깜빡 잠이 들어 어두컴컴해진 뒤에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의 축구 경기가 열린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비벽 뒤로 몸을 숨기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선수를 보았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선수 뒤로 몸을 숙이고 있는 선수는 광주 상무의 김승용 선수입니다. 큰 선수들 뒤에 숨어 틈새로 퍽을 보고 있는 모습이 꼭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겨져 오나 안오나 살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승용 선수는 상대 수비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의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비 진영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는 이때 얻은 프리킥으로 점수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승용 선수는 후반 29분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골을 넣었습니다. 광주 상무의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첫 골입니다.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골짜기’ 상무는 올 시즌 2승3무2패로 6위에 올라 불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내줍니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리빙 센스

피부색에 따른 메이크업

▲하얀 피부
핑크색 볼 터치는 혈색을 좋아보이게 하며, 노랑과 푸른색 톤이 잘 어울린다. 오렌지, 그린, 블루, 핑크는 청순하고 투명한 느낌을 준다. 반면 짙은 톤의 남색, 회색, 카키 등은 촌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까만 피부
건강하고 세련돼 보이기는 하지만 색상을 맞추기가 어렵다. 의지로 하얗게 보이게보다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느낌을 주는 브라운 계통이 잘 어울린다. 짙은 카키, 와인, 브라운 골드도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다. 블루 계통의 색상은 감색의 피부톤을 더욱 어두워 보이게 한다.
▲노란 피부
자칫 병약해 보일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을 할 때 피부색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쾌한 느낌을 주는 블루 오렌지, 그린, 보라, 레드톤이 잘 어울리며 특히 섬세한 컬러일수록 피부톤이 깔끔해 보인다. 와인 옐로, 골드, 회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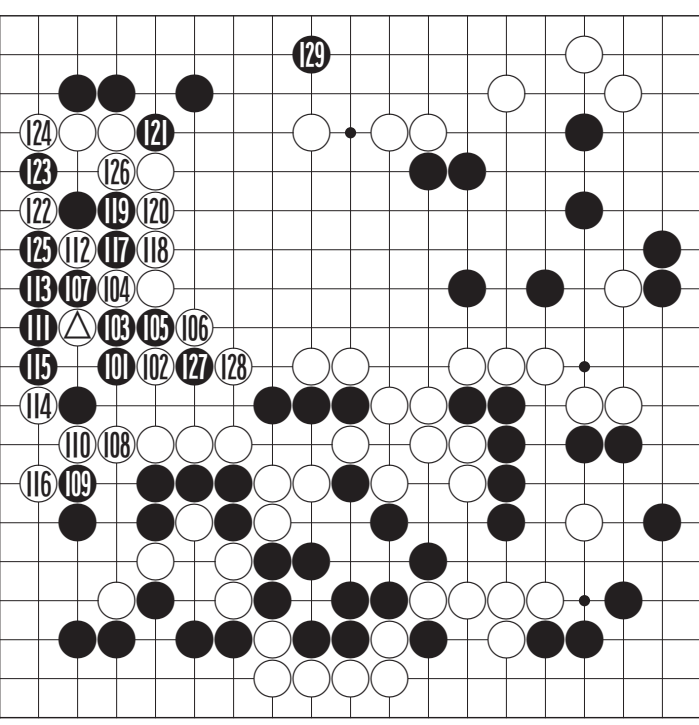
오늘의 유머

▲지각생
어느 더운 여름날, 수업이 한창 진행중인 강의실에 한 남성이 슬그머니 들어오다 교수와 눈이 마주쳤다.
교수가 교탁에 책을 내려놓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나?”
“차도 막히고, 교정에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가 화를 내며 외쳤다.
“자네, 뭐 하는 인간인가!”
그러자 그 사람이 조금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에어컨 수리하러 왔는데요...”
▲이상하다?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던 남자가 작은 냇가를 만났다.
물고기를 몰라 망설이던 남자가 옆에 있던 한 아이에게 물었다.
“예야, 저 냇가 깊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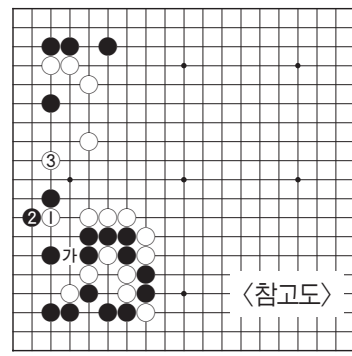
“아뇨, 아주 얕아요.”
남자는 아이의 말을 믿고 차를 몰고 냇가를 건너려고 했다. 그러나 차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깊이 빠졌더라고 말았다.
겨우 물에서 빠져 나온 남자가 화를 내며 아이에게 말했다.
“이놈아! 깊지 않다고 하더니 차가 툭째로 가라앉았잖아! 지금 어른을 놀리는 거니?”
그러자 아기가 고개를 가로뚫거리며 말했다.
“어, 이상하다. 아까는 오리 가슴밖에 안 차던데.”

▲불륜의 증거
남편이 벗어놓은 속옷에서 빨간 립스틱 자국을 찾아낸 아내가 남편을 다그쳤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봐!”
그러자 남편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도대체 그게 왜 거기에 묻었는지 난 정말 모르다고! 믿어 줘!”
남편의 말이 아내가 쿡방귀를 끼며 말했다.
“흥! 정말 모르다고? 솔직히 말해!”
그러자 남편이 불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니깐! 정말 몰라! 그때 난 처음부터 다 벗고 있었는데 언제 그게 묻을 수 있겠고!”

▲어떤 신병
신병이 들어오자 고참 하나가 물어봤다.
“야, 신병? 여동생이나 누나있어?”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그래? 몇살인데?”
“24살입니다!”
“몸매는 예쁘냐? 얼굴은?”
“미스코리아 뽑았습니다!”
그러자 왕고참이 큰소리로 말했다.
“년 오늘부터 군생활 찔다. 야 오늘부터 신병 건들지마!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을 줄 알아! 근데 니 누나 가슴 크냐?”
“예, 거시기하게 큼니다!”
그러자 갑자기 내무반이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 들었다.
“어? 니가 어떻게 알아. 니가 봤어?”
잠깐 머뭇거리던 신병이 대답했다.
“예, 봤습니다.”
고참이 황당함 표정으로 물었다.
“언제? 어떻게 봤는데?”
잠시 생각을 하던 신병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조카 젖줄 때 봤습니다!”



광주 유단자회 리그전 성급한 일격 7보 (101~129) 白 임상빈 6단 黑 박정규 5단



백 129가 회심의 일격처럼 보였는데, 이 수가 성급한 수였음에 곧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 수로는 먼저 ‘참고도’의 백 1과 흑 2를 교환해놓고 둘 자리였다. 그러면 다음에 ‘가로 끼우’는 수가 남아 흑이 실전처럼 101로

빠져나와도 위력이 없었을 것이다. 흑이 101로 슬쩍 머리를 내밀자 백의 응수가 곤란하다. 할 수 없이 102로 틀어 막았으나 흑 107로 끊어오자 운동네가 맛이 나빠져 이곳에 흑 집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임상빈 6단이 실책을 깨닫고 뒤늦게 108로 들어 보았으나 이제는 한박자가 늦었다. 흑이 110을 받지않고 111로 변신해버린 것이다. 백 116까지 좌편은 통과했으나 기대했던 좌편은 상전벽해가 되고 중앙도 흑 127까지 많이 축소가 돼버렸다. 흑 129가 우세를 확신한 미끄럼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오스람코리아배 어제 개막

신에 프로기사들의 각축장이던 제8기 오스람코리아배 연승최강전이 28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개막했다.
만 25세 이하, 5단 이하의 프로기사 중 예선을 통과한 25명의 기사가 연승전 방식으로 대결을 벌이고, 2연승 이상의 성적을 거둔 기사들에게 결선 토너먼트 진출권이 부여된다.
3연승 이상을 올리면 연승 때마다 100만원의 추가 상금도 지급된다.
대회 우승, 준우승자는 다음 대회 출전권이 없어지는 순수 신예 기전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5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상금은 우승 2천만원, 준우승 700만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for date (4월 29일),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horoscope text for each sign.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product packaging.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ssons: English (Where do you get groceries?), Korean (えっ, そうですか.), Chinese (这是谁的?), and Japanese (夏爐冬扇). Each column contains lesson text and vocabulary.